

# S/S 트렌드로 거듭난 이제 패션 샌들에 양말 신기

샌들에 양말을 매치하는 '이제 패션'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년째. 2021 S/S 시즌에는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듯하다. 패디큐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간절기에도 물과 샌들을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어 알고 보면 여러모로 편리한 스타일링이다.

'ALLERTS' (allets.com)가 '샌들+양말' 스타일링을 소개했다.



◆플라워 패턴+레이스  
벨크로 샌들에 다양한 색상의 양말을 매치하는 것이 '샌들에 양말 신기'의 기존 법칙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패턴과 소재로 구성된 '샌들에 양말 신기'를 시도해봐도 좋을 듯하다. 디자이너 안나수이(Anna Sui)는 2021 S/S 컬렉션에서 플라워 프린트와 레이스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였는데, 이는 슈즈 스타일링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플라워 패턴 양말과 레이스 달린 샌들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멋스럽다.

◆가죽+울 양말  
캐주얼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양말 연출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소재를 달리한 것. 보스(Boss)는 면이 아닌 포근한 울 양말을 선택했다. 샌들에 주로 사용되는 고무 소재는 가죽으로 변경했다.



◆슬리퍼+양말  
'샌들에 양말 신기' 스타일링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슬리퍼에 양말 신기'를 시도해보자.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다소 가벼워 보이지 않는가? 게다가 실내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 패션 브랜드 펜디(Fendi)는 여기에 양말을 더했다. 편칭으로 로고와 무늬를 더해 레이스처럼 보이는 양말을 매치한 것이다. 덕분에 봄과 여름에 어울리는 산뜻한 스타일링이 완성됐다.

관리하기 까다로운 밝은 색의 가죽이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어낸다.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다.



◆데님 소재+면 양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텔 코셰(Christelle Kocher)는 오트 쿠튀르(상류층을 위한 맞춤옷)의 정교함과 스트리트 패션의 자유분방함을 융합해 옷을 만든다. 이번 샌들+양말 스타일링에도 코셰만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갔다. 누구나

서랍 속에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흰색 면 양말에 데님 소재의 샌들을 매치한 것. 재밌는 골드 글리터 버클 장식도 눈여겨보자.



여기에 양말을 더했다. 편칭으로 로고와 무늬를 더해 레이스처럼 보이는 양말을 매치한 것이다. 덕분에 봄과 여름에 어울리는 산뜻한 스타일링이 완성됐다.

사진=ALLERTS

백세건강지킴이  
세리토스,  
다우니, 롱비치,  
실비치 지역등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시니어 약 전문상담  
•25년 병원 임상경험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Howard Drugs**

Del Amo Blvd. 와 Pioneer Blvd.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562-866-6011**

노약국 HealthMart PHARMACY

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 Systems, Inc.

JOY 핸디맨 & 플러밍

물새요:

연락주세요.

제이킴 714.249.5469

24시간

#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제공**

병원 예약, 차량제공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